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 송 영 / 찬양대
- ※ 영 광 송 / 1장
- ※ 성시교독 / 34.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1-11).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2장
- 대표기도 / (1부) 강현주 권사 (2부) 이상혁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누가복음 5:1~11
-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 말 씀 / “빈 배를 채우시는 주님” / 전종남 목사

(The Lord Who Fills the Empty Boat)

- 찬 송 / 449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 파송노래 / 620장 (1절)
-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420장, 213장
- 기 도 / 김영덕A 집사
- 성경봉독 / 레위기 22:1~16
-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게 하라.”

(Treat What Belongs to God as Holy.)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491장, 436장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1:13~25

말 씀 /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 / 전종남 목사
(The Life of a Person with a Living Hope)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김춘자 권사	윤성태 장로	김영덕B 집사

8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헌금	문미경	최영종 이영희 전복희 유경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권유진(김영미) 김승규(차정근) 김정순 김춘예 김춘자 심상현 장송자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병숙 김순천(연윤희) 김승규(차정근) 문상필 심상현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생일감사 및 자녀소원: 윤명란
선교헌금	김경희 김형문(신승희) 심상현-레구2교회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3여
구제헌금	최환철(이동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교육헌금	김순천(연윤희) 김정순 최환철(이동순)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8.16.)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삼상7:12)

전 종 남 목사

오늘은 광복 8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光復)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남북 분단과 6·25 전쟁, 가난과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가들과 참전용사들,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린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우리는 과거에 고난받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지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말과 문화를 억압받았으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식량 수탈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미움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라와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12절).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 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패와 눈물, 전쟁과 가난의 세월을 지나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3.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12-13절).

에벤에셀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지키고,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도우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